

월/요/광/장

김성재



광주의 토착 정당인 민주당이 늙고 쇠잔해졌다. 민주당에 쫓겨 있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들한테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소위 '인지도'와 '기득권'에 목숨을 거는 구태연한 인물들을 보면 말은 무성하되 정책적 참신성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일색의 광주광역시 의회가 2010년 2월 18일 경찰력까지 동원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래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노구(老龜)들의 단발마적 비명 소리가 들린다. 군소정당과 정치신인의 시의회 진입을 막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치매적 노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짧고 건강하며 뼉갈 것이 없는 정당이라면 가장 소극적인 규범인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약한 경쟁자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소수당이 한 석 차지한 것을 두려워한다면 민주당이 민주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또 다른 독재 정당이 탄생한 셈

이다. 광주에서 소수 정당의 정계진입을 막음으로써 일당 독재를 꿈꾸는 정당이라면 이미 독재에 저항해온 토착 정당으로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우선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당의 독선을 인정하지

광주 민주당의 쇠퇴성(衰頹性)

않기 때문이다. 광주를 필두로 호남에 뿌리를 둔 중앙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숫자적 열세로 입법과정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 사안에서 여당의 불법 날치기 처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거대 여당에 대항할 아권연합을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한다. 아권연합은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해 여당 견제를 거쳐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소수정당을 꺼안고 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3년 후 정권 재탈환을 소망한다면 지금처럼 작은 정치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법한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첫 걸음은 현 정권과 여당에 불만이 있는 정치 신인들과 초당적(超黨的)으로 협업하 정치조직은 가장 느린 시속 3마일로 기어 간다고 했다. 이러한 속도 개념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당조직에 가장 잘 통용될 것이다. 광주의 민주당이 시속 3마일보다도 더 느리게 변화한다면 이는 광주의 비극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뜻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다. 지역 정당으로서 낡은 기득권을 버리고 젊어지라는 뜻이다. '광주의 민주당'이 '대구의 한나라당'처럼 노화·쇠퇴하는 것을 광주시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 구체적 사례는 아주 오래되고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노화되었다고 평가되었던 한나라당이 정치 신인을 현 시율시장으로 만들지 않았던가? 광주의 민주당이 얼굴에 검버섯 난 망구(望九)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자면 민주당은 오래된 배타성을 극복하고 열린 자세로 신인과 새로운 정책을 포용해야 한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회과학대학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찰 비웃는 금은방 강도 용의자의 행적

경찰이 할 말이 없게 됐다. 공개 수배된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검문 중에 놓쳤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 용의자가 탄 승용차의 도주로를 경찰 상향살포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고도 단 한명의 경찰관만이 검문에 나섰다고 하니 도주를 자초한 셈이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적을 쫓으면서도 검거에 실패해 오히려 2차 범죄 발생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문 중에 도주한 용의자 김모(42)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고모(34)씨와 18일에만 장성, 함평군 등 전남지역과 광주시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오전 중에는 장성에서 고씨의 휴대전화 내용이 감지됐고 낮 12시 5분에는 이들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 광주요금소를 통해 광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3시경 함평군 나산 면민화관 앞에서 김씨와 고씨가 탄 승용차를 검문하다 주범적인 김씨는 놓치고 고씨만 검거했다.

공개 수배된 강도 용의자가 경찰을 비웃듯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으니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다. 수사력의 한계까지 거론되고 있다. 용의자 추적에서부터 검문, 도주 후의 대응과정 곳곳에서 허술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공조체계 부실 탓도 크다. 금은방 강도사건은 올 들어 보성과 벌교 등지서 3건이나 발생했지만 범인 검거는 미진한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 남구 구동 모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던 4인조 강도 용의자들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고서도 놓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직까지도 용의자 2명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과자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용의자 검거 역시 그에 못지 않다. 강력사건 용의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범인 검거가 급선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류남경



오늘도 사무실에 머리카락이 눈까지 내려온 고등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흡사 학교 교무실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학생들의 모습과 같다. 부모님도 처음 와 보는 검찰청이라 경직되어 있고, 학생은 주눅이 들어 아무런 말도 못한다. 학생은 검사 앞에서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된다. 일선 검사들은 소년사건들을 종종 다루게 된다. 소년사건이란 14세 이상부

이 앞으로 60년을 보통 사람처럼 살려준 3가지를 꼭 지키라고 당부한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착실하게 다녀 졸업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행을 한 많은 학생이 학교를 자의반 타의반 자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게 되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둘째, 가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범행을 한 학생들은 집이 답답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은 없고 먹고

학생들의 범행을 바라보며

터 19세 미만자가 범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에서는 소년들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을 하거나, 선도위원들이 일정한 기간 소년에게 대하여 선도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소년부를 별개로 두어 소년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는 범행을 하고 검찰청에 온 소년들에게 "앞으로 학생이 몇 년을 더 살 것 같은가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앞으로 6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60년 이상을 어떻게 살 것 인가요?"라는 질문을 추가하면 학생들은 머뭇머뭇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가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야 할 60년 이상을 좌우하게 되므로 그만큼 청소년기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준다. 그리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학생들

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다시 절도, 갈취 등 범행을 하게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경미한 절도 범행이 갈다 빈 집털이 등 강력범행으로 변해 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티켓다방 등에 들어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쳐 어린 나이에 불구가 되거나 사망까지 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오토바이가 없는 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서라도 타게 되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까지 훔쳐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3가지 당부들 들은 학생들은 나의 말에 수긍을 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사무실을 나간다. 학생들의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위 3가지라도 지키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학교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영터리 '내열강화 유리 그릇' 많아 사고 위험

유리 그릇은 사용 용도에 맞게 내열 유리, 아니면 강화 유리로 나누어 만들고 용도에 맞게 사서 사용을 한다.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 사는 유리 그릇은 그런 표기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그 표기를 믿고 사서 쓰다가 유리가 터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적잖다. 그런데 유리제조 회사나 사용설명서에 전 자재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실제로 써보면 사용 도중 금이 가거나 조각나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게 금이 가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제품이 파손되는 순간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유리조각이 주변으로 흩날

리질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특히나 내열유리도 아니고 강화유리도 아니면서 아예 '내열강화유리'라고 중복으로 표기해서 파는 제품이 문제다. 소비자 보호 당국에서는 '내열강화유리'라는 용어와 같이 애매한 용어는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내열유리, 강화유리 등 유리 재질별로 명확한 품질 표기와 함께 주의, 경고와 같은 정보 제공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유리그릇으로 인한 주부들의 안전과 부상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박미진·목소리 서신동

기고

노희용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계산을 우리의 두뇌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페인트칠을 하고 소리 지르고 느끼는 로봇이 있다. 정보화가 지력과 근력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몸과 감각기관을 재미를 느끼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미 젊은이들은 컴퓨터게임과 레이저게임, 가상체험을 즐기고 있다. 21세기는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이고 감각적인 일들이 시장화될 것이다. 미래에는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술이 뛰어나

관을 유지·집적하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기업에 제공했다.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으로 유망 기업들을 많이 끌어오고, 지역 제품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을 진흥시켰다. 삼성 전자를 중심으로 가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전통 산업이었던 금형 산업이 이제는 전국에서 상당 생산규모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가전산업은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광산업은 LED 및 광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광주, 이제 꿈과 모험의 도시다

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광주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관심과 투자를 집중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경제규모, 교역 비중 등 잠재력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다. 광주 경제 활성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추동력을 얻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관광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광주가 향후 10년간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관·레저 복합타운 기본구상을 내놓았다. 복합타운 청사진이 완성되는 2020년이면 풍부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세계적인 명품 문화관광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또 광주는 언제나 꿈과 낭만을 즐길 수 있고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광주는 지난 10여 년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 산업의 불모지에서 첨단산업을 일구어 수출 1백억 불을 달성해 다른 도시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생산도시를 향한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첨단연구개발 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도 2023년까지 5조 3천억 원이 안정적으로 투자되도록 특별법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과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다. 문화수도 조성 사업도 노무현 정부 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고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경이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는 일찍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푸른 도시 가꾸기에 힘쓰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SOC 분야도 21세기 서남권을 선도하는 중추도시에 걸맞게 사물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 가고 있는 가운데, 호남고속철도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그 간의 광주의 역동적인 발전은 시대의 큰 흐름이었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이었다. 또, 기업과 행정, 정치, 언론계 등 각계의 리더들이 지역 의 역할을 모아 온 결과다. 광주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지력과 가능성이 큰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제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때이다. <광주시 공보관>

농업용 차 속도 현실에 맞게 규제조정 필요

농업용 다목적 차는 과수의 가지치기, 절단, 그리고 양수 등 각가지 일을 해주는 중요한 기계이다. 그 외에 또 중요한 일로는 농산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다목적 농업차는 승용차 형태로 써 운전방식도 쉽고 조작성도 간편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기계는 시속이 40킬로 인데도 도로에서 빨리 속도를 못 낸다. 일반 차에 비해 40킬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15킬로까지만 낼 수 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겨우 15킬

로만 달리니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국내 농업용 차는 시속이 15km로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다목적용만 차는 요즘 경운기의 불편과 위험성을 감안해 그 대응으로 나오는 제품이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경운기 대신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방식을 기준으로 최고속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루빨리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서민 고금리 빚 '눈덩이' 방치만 할 건가

서민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낮은 신용 때문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현재 137조6천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 달 전보다 무려 2조1천8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편만 아니라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저금리 추세의 해박이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지난 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이나 채무 재조정 혜택을 본 서민이 26만명에 이른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소득 감소에 높은 이자 부담에 이중고를 겪으며 생활비늘어넣어 이자도 못 막는 막대한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서민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도 말로는 서민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서민 살림살이와는 동떨어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서민경제가 피지 않는 성장이라는 경제회복은 의미가 없다. 서민정책이 정치성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 이제라도 서민경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문제부터 타개해 서민 가계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임계점에 이르러 있는 가계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일이 곧 친서민이고 복지정책의 출발일 것이다.

無等鼓

지질(地質)시대의 마지막은 총적세(沖積世)다. 대략 1만 년 전부터다. 지구가 탄생한 뒤부터 현재까지를 표준석회와 지각변동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인류는 총적세 초기에 농경을 시작하고 이후 급격히 문화를 발달시켜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최후의 지질시대를 잇는, 또 다른 연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필요하다. 인류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환경체계가 급변한 까닭이다. 엘니뇨나 라니냐, 라마마와 같은 해수의 이상기와 지구온난화가 대표적이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크뤼첸(Paul Crutzen)은 이 새로운 시대를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인류로 인해 빚어진 시대'라는 의미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 기체의 대기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불쏘듯' 써온 탓이다. 이제 인류는 그로 인해 초래된 환경재앙

과 맞서 싸워야한다. 환경 훼손의 대가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기의 0.03%에 불과하지만 100년 넘게 잔류하며 축적된다. 이 점에서 치명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세'다.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철강 및 석유화학 등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적 공동 보조를 맞추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이

탄소세



제 인류는 그로 인해 초래된 환경재앙과 맞서 싸워야한다. 환경 훼손의 대가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기의 0.03%에 불과하지만 100년 넘게 잔류하며 축적된다. 이 점에서 치명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세'다.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철강 및 석유화학 등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적 공동 보조를 맞추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